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7월 3일(금)

...(윤력 5월 19일)...

Пятница

3 июля 2026 г.

№ 26 (1219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 3일은 러시아 국가자동차검사국 직원들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러시아 전역에서 온 청년 활동가들, 습슈섬 방문

러시아 청년의 날을 맞아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연방 청년사업청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사할린주에서 진행 중인 기획개발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러시아 전략기획청의 평가에 따르면 사할린주는 러시아 지역들 중 청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5대 지역 중 하나로 꼽혔다. 습슈섬에 기념 및 군-애국 캠프, 극동 코메디 대결, 사할린의 대표적 기획인 '오스트로와' 전국 포럼 등은 러시아 전역의 재능있는 청년들을 불러모으는 기획들이다. 우리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이들의 사회진출의 야망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사할린 알라이드' 영재센터와 '오스트로와'직업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사할린 국립대학은 '가스프롬' 기업의 거점 대학으로 지정되어 장학생 선발 비율도 25% 늘렸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청년사업청의 그레고리 구로브 청장은 사할린주가 청년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곳 청년들은 개방적이고, 용감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있다. 다른 지역들에서 온 청년들도 언제나 기획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안다. 특히 '행복한 어머니'기획을 비롯해 청년 가정 지원과 출산장려 프로그램은 돋보이는 기획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원만 아니라 청년 가정의 주택, 직장, 교육, 자녀양육의 기회, 근로여건 등 종합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부터 사할린에

서 운영되고 있는 러시아청년청의 기획인 '오스트로와'연중 교육센터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오스트로와' 교육센터는 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청년 전문가들이 사할린과 쿠릴열도, 전 극동지역에서 사회적 진출을 탐색하도록 돕고, 기업에서 청년정책조합 구성에 참여하고, 다른 지역들과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향후 애국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논의하며 로스몰로조위의 후원으로 습슈섬에서 수색활동과 관광탐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세웨르나야 산과 바이코워 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활동이 진행되고, 전 러시아 지역에서 방문한 청소년 활동가들은 전쟁 영웅들의 자취가 있는 전적지들을 돌아볼 계획이다.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습슈섬에 100개 이상의 청소년 단체관광을 조성할 예정이다.

습슈섬에는 승전 80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군-역사 기념단지가 조성되었다.

사할린주의 가장 대표적인 기획 중 하나는 코메디 활동이다. 극동 방송국이 사할린에 창설한 코메디 대결은 극동 창조경제기획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사할린 생산'팀은 올해 코메디 대결에서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러시아청년청이 주관하는 <오스트로와> 전 러시아 청년 포럼이 오는 8월10일부터 16일까지 사할린 지역에서 개최되어 전국에서350명의 학생, 대학생, 청년 직장인 대표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을 위해 취업박람회와 산업시설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포럼 폐막식에서는 러시아청년청 장려금 경연의 우승자들이 발표된다.

올해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165개동 주택에 대규모 보수공사 진행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이 주택외관공사현장을 시찰하고 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우크라이나스카야 거리 9번지 주택들은 1978년에 건설된 주택들로 내부 시설 연결망들이 수리됐고, 현재 지하실 주요 설비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출입문과 지하실 창문도 교체가 되어 8월까지 새단장을 마칠 예정이다. 건물의 균열을 꼼꼼히 메우고, 두터운 단열재도 설치하고, 동쪽 무너진 외벽도 예정보다 앞당겨 보수공사가 잘 되었다.

주민들이 지난해 시설 연결망 공사 시 남겨진 공사 흔적에 대한 지적에 주지사는 주요시설 보수공사재단 및 관리회사와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방치된 컨테이너 야적장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관리회사의 대표들에게 "주민은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며, 모든 공사작업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효율적으로 완료되도록 하라. 우리가 직접 와서 작업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할린주에 공동주

택 165개동에 대한 주요 전면 보수공사가 진행 중으로 299개 시설 부문의 개보수공사가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146개동 218개 시설의 보수공사가 이뤄져 노후된 배관 교체, 건물 외벽 및 지붕의 개보수 공사를 했다. 이러한 보수공사로 겨울철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성과 건물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예밀라노와 거리 21번지 주택가 마당에 주민들이 자전거 거치대와 어린이 놀이터 설치 요청이 있어 자전거 거치대는 조만간 설치하고, 놀이터는 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주민들은 주거생활에 매우 적극적이고, 관심도 높다. 다자녀 가구들이 사는 이곳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은 절박하다. 예전에 주택가 보수공사 시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되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시설 조성에 주민의 동의를 얻는 대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정부 자료에서)

단신

사할린주, '아빌림픽스' 2026 결승 진출자 선정

사할린주에서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대상 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아빌림픽스' 지역 예선이 지난 6월 19~30일 진행됐다. 사할린에서 4개 행사장이 열려, 174명(학생 70, 대학생 62, 전문가 42)이 11개 부문에서 경연을 치렀다,

올 가을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될 결승전에 사할린주를 대표해29명이 출전하게 되었고, 경연 부문 중에서 특히 로보공학, 무인기 조종, 미용, 목공 종목이 주목받았다.

드론공항 '푸쉬스트' 에서 <사할린의 날개> 국제 포럼 개최

7월 3일~4일 코르사코브 지역 '푸쉬스트' 드론공항에서 제12회 <사할린의 날개> 무인기 조종·음악·스포츠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과학, 문화,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개발자, 엔지니어, 생산자, 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무인기술을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시연과 공중 및 해양 드론 비행 테스트, 법제 및 안전 규제에 관한 전문가 토론, 조종 및 프로그래밍 실습교실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첨단 무인장비 전시회와 축제 '날려라'가 진행되어 이번 포럼은 극동 지역 무인항공기 발전의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졸업생 1500여 명 학교 졸업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공원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도시 학교 학생들의 합동 졸업식이 열렸다. 11학년 학생들 1500여 명의 참석했으며, 올해 79명이 1등급의 우수상을, 55명이 2등급 우수상을 받았고, 12명이 수능 만점을 기록했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여러분의 마음은 고향에 남길 바란다."며 "행복하고 성공하라."는 당부를 했다. 졸업생들은 선서를 하고, 왈츠를 추며 감격을 나눴다.

행사는 콘서트와 야외 디스코로 이어졌다.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주민 제안, 극동 전략개발에 반영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30년(2036년까지 전망)까지 극동 지역의 사회적 경제발전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극동 연방관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이 거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문서에 여러 방안을 제출했다.

우리 트루트네브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지시에 따라 극동 지역에서는 전략기획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정부, 기업, 과학계,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확대회의가 마무리됐으며, 사할린주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제안들이 최종 문서에 채택되어 오는 8월 1일 확정할 예정이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주는 러시아에서 투자의 매력이 가장 높은 3개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다.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사할린-3' 기획으로의 전환이 중대한 경제 과제이고, 투자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투입된다. 우리 지역에는 편안한 주택, 접근성 높은 의료, 잘 정비된 도시, 풍성한 문화와 스포츠 생활이 있다.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사할린테크'도 건설 중이다. 핵심 과제는 지역 내 우수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 및 핵심 경제산업을 위한 인

력 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페트로위츠 트루트네브의 지도 아래 극동 지역에는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할린주는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를 더 깊이 분석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일이다."라고 전략개발 회의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사할린주의 연간 투자 증가율은 20%에 달하며, 빈곤율은 4.7%로 낮아졌고, 공식 실업률은 3년 연속 0.3%라는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오랜만에 지역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우선적 과제로는 석유, 가스, 석탄 생산 확대 및 연료 생산공장 건설, 석유가스개발기획을 위한 서비스 기반 강화 등이 꼽힌다. 물류 분야에서는 코르사코브 항구 현대화가 핵심 사업이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가공산업 확대와 양식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전략의 상당 부분은 무인기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 기술 발전과 관련돼 있다. 관광업, 특히 '고르니 위즈두흐'스포츠허리 단지를 기반으로 한 온천 관광 및 리조트 개발사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략기획은 러시아 극동개발부, 연방 국책연구기관 '워스토크고스플란',

극동 및 북극 개발 공사가 연방 정부 기관 및 극동 지역 수장들과 협력해 준비하고 있다.

미하일 쿠즈네초브 '워스토크고스플란' 소장은 "사할린주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지역의 새로운 기획들은 새 전략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2차 5개년 계획을 내다보며 우리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했다. 첫째는 에너지 분야 신규 설비 확충의 필요성이고, 둘째는 도시환경 개선이다. 또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우리는 극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정 도시의 실질적인 환경개선부터 대규모 중대 사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안이 접수됐다.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주민들의 생활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작성돼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5년까지 추진된 이전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 덕분에 극동지역은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가 2배로 증가하고, 연간 주택 공급량도 1.5배 늘어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유입 추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됐다.

사할린 국립대, 지원자 수 사상 최고 기록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 국립대 입학처를 방문해 예비 신입생들과 만났다. 현재 지역의 주요 대학에는 지원 열기가 뜨겁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많은 학생들이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입학원서 접수는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현재1100명 이상이 지원했다.

"올해 사할린주의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3000명이다. 우리는 그중 최대한 많은 학생이 우리 대학에 진학하길 바란다. 이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첨단 캠퍼스 건설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대학으로 초대한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지원자들에게 말했다.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은 정규 학사(무료) 총 695명, 유료 정원 500명이다. 장학금 지원 자격 점수에 미달되는 학생들은 주 예산에서 등록금의 절반을 보조받을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러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곳은 사할린주가 유일하다.

새로운 교육과정도 주목받고 있다. 해양생물공학, 해양생물자원 및 양식업, 화학기술, 기술물리학, 광고 및 마케팅 사회학, 정보 보안, 혁신, 원예, 디자인, 운송 물류 경영학 등이 신설됐다.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사할린 국립대는 극동 최초로 '가스프롬'의 거점 대학이 됐다. 이에 따라 사할린 국립대는 '가스프롬 유즈노사할린스크 석유가스생산'과 공동으로 '석유, 가스공학' 전공 안에 '해양 석유, 가스전 개발 및 운영' 석사 과정을 신설했다. 이 교육과정은 세계적 수준의 대륙붕개발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 저 모

새로운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사할린주 여성 의료인들에게 지원

사할린 주립병원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에 최대 1만 루블리까지 지원한다.

사할린주에서 새로운 사회복지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출산휴가 중인 여성 직원들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먼저 사할린 주립병원의 여성 의료계 종사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 지원책을 통해 업무환경에 더 빨리 적응하고, 복직 예정인 여성들이 유연하게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 연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가족' 국민기획의 취지의 일환이다.

현재 주립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 74명이 출산휴가 중이다. 모든 직원들은 자녀가 만 3세가 되기까지 육아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젊은 어머니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직장에 복귀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런 경우를 위해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된 것이다.

사할린 주립병원의 블라디미르 라주메이코 수석 전문의는 "의학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병원의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는 직업 복귀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상환 정책이 나오자마자 우리 병원에서는 이 정책을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환 금액은 전문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체 비용의 3분의 1인 최대 1만 루블리이다. 여성 법인이거나 개인 자영업자들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할린주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2026년을 어머니가 행복한 해로 선포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필연적으로 생겨나 갈수록 이 정책과 지원을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기관들의 수도 증가될 전망이다.

Мамы-мед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ая поддержка на оплату няни

Компенсация до 10 000 рублей на оплату няни теперь положена сотрудниц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Новая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чина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женщины, находящиеся в декрете, теперь смогут частично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расходы на оплату услуг няни. Перв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где сотрудницам предоставили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стала областная клиническая больниц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анная мера позволит быстрее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рабочему процессу и плавно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обязанностям. Отметим, инициатором федерального нацпроекта «Семья» является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егодня в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в декретном отпуске находятся 74 женщины – врачи, медицинские сестры,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персонал. Каждая сотрудница имеет право находиться рядом с ребенком до достижения им возраста трех лет. Но часто молодые мамы стремятся быстрее вернуться к рабочим обязанностям. Именно для таких случаев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нов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Медицина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 мы не можем позволить себе стоять на месте. Поэтом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ши женщины редко находятся в отпуске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весь положенный срок — стремление быть в профессии очень велико. Поэтому, как только появилась идея такой компенсации,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внедрить ее в нашем учреждени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Владимир Разумейко.

Сумма компенсации может достигать 10 000 рублей – 1/3 от полной оплаты услуги услуг специалиста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няни женщины могут как к юридическому лицу, так и к индивидуальном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ю. Важно, чтобы между сторонами был заключен официальный договор.

Такая инициатива родилась неслучайно – 2026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лен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Годом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Со временем количество организаций, где женщина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данн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будет расширено.

〈러시아 여성의 마음〉축제에서 사할린주, 이투루프섬의 모래부터 클로포브카 시립까지 선보여

러시아 민족단결의 해를 맞아 극동 연방관구의 17개의 주민과 민족 대표로 여성들과 영웅들의 어머니들이 부랴티아 공화국의 수도 올란-우데에서 열린 전국 창작축제 2차 단계 〈러시아 여성의 마음〉에 참가하러 왔다.

축제의 주요 행사는 〈러시아 여성의 마음이 만드는 손재주〉전시회로 극동지역의 문화유산을 반영하는 생활용품, 수공예품, 창작기획들을 선보였다.

그중 사할린주의 작품들이 전시회의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조국 수호자' 재단 사할린 지부의 사비나 쿠세브스카야 지부장에 따르면 전시회 구성에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들의 어머니들과 사할린 지역의 장인들 및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전시품 중에는 박 스웨틀라나의 조개껍질로 만든 기념품과 자석, 올가 콜레스니코브의 시와 출판물, 웨로니카 오시포

와의 생선껍질로 만든 그림이 있었고, 창작활동으로 〈고래의 항구〉와 〈사할린의 목욕탕 직원〉에서는 크라스니카와 해초를 함유한 천연소금을, 〈사코〉제과회사가 만든 크라스니카와 해초로 만든 젤리, 클로포브 시립을 선보였고, 또한 이투루프섬의 흑색 티타늄 자석모래와 사할린주 관광부의 후원으로 그림엽서로 된 관광 안내서를 전시회에서 볼 수 있었다.

사비나 쿠세브스카야 지부장의 말에 따르면 상당한 양의 전시품을 가져와 전시할 수 없었지만 다음 축제에서 사할린 참가자들은 더 찬란한 사할린주의 특색을 펼쳐보이고, 새로운 창작품들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영웅들의 가정지원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지원만 아니라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신이 만든 것을 전시하며, 어려운 시기에 문화의 정체성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От песка Итурупа до сиропа клоповки: Сахалин покорил фестиваль «Женское сердце России»

В столице Бурятии состоялся второй окружно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Женское сердце России». В Год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его участницами стали жены и матери героев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Они приехали на мероприятие, чтобы представить 17 народов и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нашей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фестиваля стала выставка «Золотые руки женских сердец России». На ней представили предметы быта, изделия ручной работы и творческие проекты, отражающи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собый колорит экспозиции придала коллек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Сабина Кушевская,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экспозиции участвовали мамы ветеранов СВО, местные мастера и предприятия региона.

В числе экспонатов — сувениры из ракушек и магниты от Светланы Пак, стихи и печатная продукция Ольги Колесниковой, картины из рыбьей кожи Вероники Осиповой. Творческая мастерская «Китовая Гавань» и «Банщицы Сахалина» представили бережную соль с красной и ламинарией, а кондитерская фабрика «Сако» — мармелад из агар-агара с красной и ламинарией и сироп клоповки. Также на выставке мо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черный титано-магнетитовый песок с Итурупа и путеводители с открыткам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региона.

По словам Сабины Кушевской, не все удалось привезти из-з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объему, поэтому сахалинцы планируют на следующем фестивале ещё ярче раскрыть уникальность своего края и удивить гостей новыми творческими работами.

(8면에 계속)

"장학금을 발판으로 미래까지"...

동포 청년 성장 지원

학업 지원 장학생 27명 첫 만남...

선배들과 유학 경험 공유

학업부터 진로 한국생활까지 생생한 경험 나누며
성장 지원

올해 처음 시작한 '재외동포청년 학업지원사업' 장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배 장학생들과 한국 유학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6일(금)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에서 학업 지원 장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중국, CIS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 출신 장학생들이 참석해 한국에서의 학업과 생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기존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출신으로서 현재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한 멘토들이 참석하여 대학 생활, 진로 준비, 취업 과정, 한국 생활 적응 경험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졸업생 멘토들은 장학생 후배들에게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성적 관리, 한국어 공부가 중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특히 취업 관련 인턴십과 대외활동 경험이 중요하므로 동포청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이겨내는 것보다는 선배들, 장학생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장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관한 의견과 건의사항도 들었다. 청취한 의견은 앞으로 장학사업 운영과 정착 지원 정책을 개선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장학사업은 학비를 지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우수한 동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배우고 성장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업과 진로, 정착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

뉴욕 · 오사카 · 뮌헨 · 파리 등에서 잇달아

교류 행사 개최해 연결망 확대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인연 바탕으로 지역별 협력과
차세대 리더십 강화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서 시작된 차세대동포의 연결망이 세계 각지로 확대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차세대동포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이 거주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FLC 리유니온(Future Leader's Conference Reunion)' 행사를 올해 전 세계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연다고 밝혔다.

※ 차세대동포 : 약 25세~45세의 청년 세대 재외동포

FLC 리유니온은 세계한인차세대대회의 '지역별 대회'로서,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별 교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행사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으며, 일본 오사카와 독일 뮌헨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미국 등 총 8개 지역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미국 뉴욕 (3월), 일본 오사카 (6월 27일), 독일 뮌헨 (7월 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7월), 러시아 모스크바 (7월), 미국 애틀랜타 (9월), 미국 피츠버그 (9월), 프랑스 파리 (하반기) 6월 27일(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이영재 주오사카 총영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재일동포 차세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60여 명의 참가자들은 재일동포 사회의 과제와 차세대 연결망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7월 4일(토) 독일 뮌헨에서는 주최 측인 '독일차세대협회'의 출범식이 함께 열린다. 영국 킹스턴시 신임 부시장 임혜정 의원, BMW 전 CFO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선배 세대들이 참여해 유럽 전역에서 모인 차세대동포 100여 명과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행사가 차세대동포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 미래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대한민국은 선배 세대의 노력으로 과거 식민지 침탈을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라며 “선배 세대에 이어서 차세대동포들도 한류의 전파자이자 경제영토의 확장자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연쇄 행사를 계기로 전 세계 차세대동포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재외동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정 하

관리번호	70808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 정 하	한자	金鼎夏
이명	金正夏, 金政夏, 李成範	성별	남
생년월일	(1897-10-14)	사망년월일	1938-01-18
본적	함경남도 이원		

공훈록

김정하는 1920년 9월 노령(露嶺) 포조(浦潮)에서 폭탄(爆彈) 6개를 함북(咸北) 청진(淸津)으로 반입하였으며, 동년(同年) 11월 이후 일본군 및 한국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제공하고 독립운동자금 모집을 위해 김용범(金用範)에게 공채증권을 전달하였다.

1923년 2월 국민대표대회(國民代表大會)에 상해파(上海派)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 대표로 참석하였고 창조파(創造派)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 제3대 사령관(司令官)으로 활동하였으며, 동년(同年) 4월에는 단지동맹암살대(斷指同盟暗殺隊) 대장으로, 7월에는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 군정위원(軍政委員)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 3월에는 간도(間島)지역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고려공산당 별동선전대인 세우단(世友團)의 집행간부를 역임하였다. 동년(同年) 11월 대동회(大同會) 모연대(募演隊)의 제2구인 간도, 북선방면(北鮮方面)을 맡아 활동하였으며 1925년 니콜리스크에서 적기단(赤旗團)의 극동(極東) 청년공산당(

靑年共產黨)의 연락자로 활동하였다.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29년 11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조직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하여 위원이 되었고 1932년 11월부터 1934년 5월까지 모스크바 공산대학내 조선민족부 교관을 지냈다. 1937년 8월 28일 소련의 재소(在蘇) 한인에 대한 탄압정책 과정에서 체포되어 1938년 1월 18일 총살당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大正12年 9月中 間島 및 接壤地 地方 治安狀況에 관한 건(1923. 10.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34)
- 大正12年 10月 中 間島(琿春縣을 包含) 및 接壤地方 治安情況(1923. 11. 1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37)
- 最近 間島 및 接壤地方 不逞鮮人の 行動에 관한 件(1924. 3. 2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38)
- 沿海縣 지방 공산당 및 고려부의 개황에 관한 건(1925. 1. 1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5)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119면
- 極東 靑年共產黨 連絡者 名簿 送付의 件(1925. 4. 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鮮人和 過激派(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집 850면
- 노령에 있어서 불령선인단에 관한 건(1923. 2. 2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4)
- 上海에서의 鮮人共產黨(1923. 4. 3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鮮人和 過激派(4)
- 鮮人に 관한 건(1920. 9. 2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1)

-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1. 6. 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2)
- 國外 不逞鮮人の 狀勢에 관한 件(1923. 10. 2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4)
-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0. 10. 7·11. 13·12. 22, 1921. 1. 12·1. 26·3. 2·5. 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1)
- 浦潮方面 共產黨의 組織 並 不逞鮮人の 狀況에 관한 件(1923. 2. 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4)
- 斷指同盟暗殺隊에 관한 건(1923. 4. 1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4)
- 不逞鮮人 創造派의 委員制度 組織에 관한 건(1923. 4. 3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鮮人和 過激派(4)
- 不逞鮮人 國民代表會議의 近況에 관한 건(1923. 2. 1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上海假政府(4)
- 在上海 僭稱大韓臨時政府의 公債募集 等에 관한 건(1924. 2. 2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上海假政府(5)
- 在外 要注意 鮮人 別名 變名 雅號 調査에 관한 건(1924. 6. 1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39)
- 極東 靑年共產黨 名簿 入手의 件(1925. 4. 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鮮人和 過激派(5)
- 코민테른기록과 한국전쟁관련기록물(국가보훈처) mf-1
- 間島接壤地 地方에 있어서 不逞鮮人の 行動에 관한 건(1923. 9. 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34)
- 東亞日報(1921. 4. 20)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России Сергей Тен удостоен Ордена Дружбы

24 июня 2026 года в Москве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осси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Госдумы по вопросам собственности, земельным и имущественным отношениям Сергей Юрьевич Тен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был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Дружбы.

Высо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награда присуждена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парламентаризм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а также ак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граждение стало признанием его многолетней и плодотворной работы на бла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общества.

Орден Дружбы Сергею Тену вруч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Ф 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россий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https://t.me/saramkor>)

Олег Ли назначен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ашкортостана

Месяц назад (в мае 2026 года) в Башкортостане появился новый вице-премьер. Глава Башкирии Радий Хабиров назначил 32-летнего уроженца Узбекистана Олега Ли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по внедрению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развитию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Олег Александрович Ли родился 18 апреля 1994 года в городе Ангрене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Узбекистана.

Окончил Национ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и Финансов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чал в 2016 году главным специалистом-экспертом Департамента оценки регулирующего воздейств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8–2019 годах – главный специалист-эксперт, консультант Департамента 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службы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20–2021 годах – эксперт, старший эксперт проектного офиса АО «Росэксимбанк».

В 2021–2022 годах –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Центра экспертизы по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АНО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22–2024 годах –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В 2025–2026 годах – советник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АНО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t.me/saramkor>)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 Институте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27 мая 2026 года в Центре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руководитель — Пак Бэлла Борисовна) состоя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Дипломатия,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сохранение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К 130-летию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ребы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ороля в российской мисс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презентация первого научного перевода путевого дневника перв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осла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ин Енхвана

«Хэчхон чхубом» и сборника стат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14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работе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едущие учены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ибир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ветствовал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и Сокпэ.

(Сайт Коре-сарам)

Диана КУ-ЧЕГЛАКОВ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очерк Николая Долгополова о легендарном разведчике,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и Ивановиче Киме.

Жизнь в триумфах и трагедиях.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1932–1998)

Николай ДОЛГОПолов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8,19, 20,21,22,23,24,25)

Вот его неизменное жизненное кредо: «Чтобы стать разведчиком, нужно быть универса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ым, образованным человеком... И потом, нужно бесконечно любить и свою Родину, и страну, где ты находишься... Нужно быть бесконечно добрым человеком. И нужно, чтобы вас любили за это все и всюду.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ебе безопасность, вы не должны иметь ни единого врага. Трудолюбие также залог успеха в нелегальной разведке. При подборе кадров нужно именно человека трудолюбивого,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искать. Никто за вас ничего не будет делать. Нелегальная разведка — это именно «один в поле воин». Даже если нелегал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и женился на иностранке, эта его жена не должна знать, кто он. Такой закон».

Было ли возвращение в Москву окончательным? Занимался ли он только воспитанием чекистской смены? Быть может, его опыту по-прежнему находили практическое применение, выводя н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за кордон для участия в различных сложных операциях.

По-разному сложилась судьба его раскиданных по свету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 1953 году жившим на острове корейцам начали выдавать советские паспорта. А тем, кто хотел, разрешали выехать в Корею, понятно, что социалистическую, Северную.

Один из братьев воспользовался решением. В КНДР окончил медицинский институт. Великолепный врач, он до конца своих дней обслуживал высшее и наивысшее руководство страны. Есть фото военного медика Кима в офицерской форме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страны чучхе. Об авторитете доктора и о его положении можно судить и по закреплённому персонально за ним автомобилю с шофером. Такое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редкость.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не потерял связи с семьей, оставшейся в СССР. Переписывался и, наверное, встречался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Еще один брат в 1930-е годы на Сахалин так и не переехал, остался в Корею. Его дети сейчас живут в Сеуле.

Старший брат жил в Шахтерске, работал завучем в той же школе, где учился Ким. Еще один брат, Ким Ен Ток, трудился на Сахалине: сначала на шахте, потом на лесозаготовках. И наконец, пятый из братьев Ким переехал с острова в наш анклав — в Калининград.

Сахалин — край суровый. Не просто выжить, а жить достойно здесь потруднее, чем где-нибудь на московском Садовом кольце или в переулке у Невского проспекта. Дружной семье Кима это удавалось. Быт в их доме был налажен.

Но однажды, после наводнения, один из братьев потерял все, годами нажитое. Личные вещи, документы смыло, пропало, унесло. И тогда брат, трудившийся на лесозаготовках, продал единственно ценное, что у него было, — лошадь, перевозившую лес. Деньги отдал брату. Так и поднимались на ноги, выживали.

Младший брат Ким Ен Чер —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л. Человек добрый и щедрый, помнил, кто помог ему выбиться в люди. Когда н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приезжал в отпуск, одаривал семью подарками: одеждой, продуктами, всем, что только было нужно и что было можно сложными путями доставить на Сахалин. Купил дефицитнейший в 1970-е годы «Москвич-412», да еще в экспортном исполнении, и отправил близким на Сахалин. Племянникам посылал небольшие денежные переводы. Не забыл и о брате-враче, жившем в КНДР. Тому, несмотря на высокий пост, тоже приходилось нелегко в сложные 1990-е годы. И, оконча-

тельно вернувшись в Москву,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посылал ему целые контейнеры со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Заботился о племяннике Александре Яковлевиче. Имя для корейца несколько непривычное. Но я уже упоминал, что вся семья была крещеной. И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тоже сменивший имя, порекомендовал приехавшему в Москву племяннику последовать его примеру и обрести имя, более привычное русскому уху.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увидел в родственнике определен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советовал продолжить учебу. И тот поступил в Горный институт. Дядя помогал не только советами. Деньгами тоже. Из страны, в которой работал, привозил вещи, в ней умело сделанные.

О личной жизни Кима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известно немного. Бывал на своей маленькой даче. По-прежнему вскапывал грядки, выращивал овощи, особо не огорчаясь скудному порой урожаю.

Не любил шумных застолий. Но на торжество по случаю вручения Звезды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ресторане «Пекин», который в те годы был любим и предпочитаем соратниками по профессии, собралось немало приглашенных. Предложили ему опустить награду в стакан, как у нас почему-то принято.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отшутился: «Нет, в армянский коньяк не будем, испортится».

К спиртному был равнодушен.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нимал рюмку коньяка. В прежние годы курил, но бросил. Изредка, но все-таки просил у знакомых сигаретку. Пару раз затягивался, и хватало.

К еде относился спокойно. Когда еще состоял в браке, нахваливал жену, даже когда что-то не получалось. Громко говорил, что, да, сыровато, но так даже вкуснее и полезнее. Предпочитал, что неудивительно, восточную кухню. У него в доме ели палочками.

Когда вытаскивали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на загородный пикник или на рыбалку, то предпочитал тихо любоваться природой, уходя в глубокую задумчивость.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рисуя портрет типично восточного человека. Наверное, и так?

Много читал. Вот и все хобби.

Одевался элегантно. Предпочитал костюмы хорошего покроя. Аккуратно подбирал к ним галстуки.

К нему была прикреплена персональная «Волга». Дали просторную квартиру около старинной линии метро. Значит, уважали крепко.

Если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и грустил, как рассказывал генерал Дроздов, то вида не показывал. Хмурым его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и. Улыбчивый, вежливый.

Старался скрывать от окружающих, что чувствует себя неважно. Видел плохо. Постоянно наблюдался у офтальмолога. Вот и 12 ноября 1998 года шофер служебной машины доставил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в закрытую, сугубо служебную клинику.

Ноябрьская непогода перешла в стужу и снегопад. Рановато для этого скучного времени года. Обрато добирались долго, простаивая в пробках. Ким попросил водителя остановить машину неподалеку от дома. Хотел размять ноги, прогуляться.

И пробил час последней трагедии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У самого дома, уже во дворе, его сбила машина. Винить ли в этом сидевшую за рулем женщину? Ехала медленно, скорость меньше 20 километров. Подвело Кима, это точно, ослабевшее зрение.

Источник: Долгополов Н.М.

Легендарный разведчик-4. М., 2024. С. 93–113. —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сер. биограф.; вып. 2003).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и Красный Крест обсудили пути расшир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Ким Чжин А и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обществ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и Красного Полумесяца Джаган Чапагин обсудили 30 июня в Сеуле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ах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и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стихийные бедствия. Ким Чжин А отметила роль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в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и борьбе с гуманитарными кризисами во всём мире. Джаган Шапаган выразил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Сеулу за поддержку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организации и попросил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регионы, сталкивающиеся с растущими гуманитарными потребностями, включая пострадавшую от землетрясения Венесуэлу.

РК продлила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для туристов из шести стран

1 ию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К сообщило о продлении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для групповых туристов из шести стран - Китая, Камбоджи, Индии, Индонезии, Вьетнама и Филиппин.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окаже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оживлен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местной экономики.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в 2025 году в составе туристических групп РК посетили около 790 тысяч иностранцев, что на 39%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Из них лишь 0,07% превысили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или продолжают находиться в стране нелегально, что на более чем 50%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Сеть Институтов Сэчжона продолжает расширяться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й популяр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о всём мире продолжает расширяться се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Институтов Сэчжона). Как сообщили 30 июн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23 странах открыты 29 н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Сэчжо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их общее число составило 273 в 89 странах. Из-за устойчивого роста числа иностранцев, желающих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заявки на открытие н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подали 102 организации из 45 стран. Это стало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исло слушателей онлайн- и офлайн-курс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 всему миру составило 239.020 человек.

МИД РК проводит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за рубежом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роводит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их историй» (Korean Story Festival). Глоб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проводится через более чем 60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в странах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Америки, Европы, Азии, Океании и Африк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Д РК,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к программ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осольства РК в 21 стране. Ещё более 40 посольств планирую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ней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Посольства РК в Швейцарии, Канаде, Норвегии и Иордании организуют показы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в рамках местных кинофестивалей.

«Исти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лидирует в Netflix 4 недели подряд

Новый сериал «Исти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 участием актёра Ким Му Ёля, вышедший 5 июня, остаётся самым просматриваемым неанглоязычным сериалом на платформе Netflix. Он четвёртую неделю подряд заним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неанглоязычных шоу. За период с 22 по 28 июня число просмотров сериала составило 7 млн 300 тыс. Он возглавляет чарты в шести странах, в том числе, в РК, Японии, Сингапуре и Индонезии, а в 75 странах входит в первую десятку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Исти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работе вымышл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Бюро по защите прав учителей», созданного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порядка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защиты прав учителей в РК на фоне участившихся случаев недопустимого повед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учеников, учителей и родителей.

Мобиль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К в мае минимальная за 52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и 25 июн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данными,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466 тысяч южнокорейцев смени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Это на 1,5%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а также мин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за 52 года с мая 1994 года. Мобильность сократилась из-за снижения предложения жилья, а такж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вызванных сокращением численности молодёжи и старением населения. 65% смени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того же региона, а 35% переехали в другой регион. Коэффициент мобильности, то есть, число переселяющихся в расчёте на 100 человек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ил 10,8, снизившись на 0,2 пунк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Это самый низ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сбор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атистики в 2000 году. Чистый приток населения наблюдался в семи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а в десяти регионах отмечен чистый отток.

Из офиса интернет-гиганта в кресло премьера, что известно о новой глав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Хан Сок Сук

30 июня парлам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збрал 59-летнюю Хан Сон Сук на пост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страны, после чего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ее назначении на должность. Хан стала второй в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женщиной-глав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СМИ, прошла необычный для такой должности путь.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поводу кандидатуры состоялось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Из 167 депутатов, принявших участие, 166 поддержали Хан, а один бюллетень был признан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 Оппозиция коллективно бойкотировала голосование, но это не сказалось на результате, так как правящ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имеет большинство. После этого президент Ли Чжэ Мён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назначении Хан Сон Сук. Она вступила в должность с 1 июля.

Хан Сон Сук стала 50-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второй женщиной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возглавивш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 нее этот пост занимала только Хан Мён Сук, работавша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в 2006-2007 года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торой случай назначения женщины на эту должность произошел спустя почти 20 лет.

Согласно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в местных СМИ биографии, Хан Сон Сук прошла весьма необычный для премьера жизненный путь и доказала способность добиватьс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Она родилась недалеко

от Сеула, в городе Ёйджонбу и окончила столичный же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Сукмён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а". В отличие от большинства своих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она пришла в большую политику не из чиновничьей среды, а из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бизнеса.

Свою карьеру Хан начала как журналист,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вшийся на компьютерной тематике, после чего перешла в ИТ-индустрию, где стала уже подниматься по карьерной лестнице как управленец. Она работала в компаниях Empas и Naver, а в 2017 году стала первой женщиной -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крупнейш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пании Naver (своего рода аналог российского "Яндекса"). При ней компания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ла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развивала цифровые сервисы и осуществила ряд крупных зарубежных приобретений. С 2017 по 2021 год Хан неоднократно входила в рейтинг самых влиятельных бизнесвумен мира по версии делового журнала Fortune, а в 2018 году была включена Forbes в список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бизнес-лидеров Азии. На госслужбу она пришла совсем недавно - в 2025 году, когда занял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и стартапов, а теперь возглави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О личной жизни Хан Сон Сук известно крайне мало, в браке не состои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Южная Корея анонсировала "большой скачок" в эпоху ИИ: Сеул объявил гигантскую программу инвестиций 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дата-центры и роботов

Южная Корея объявила о запуске трех мега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определить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на ближайшие десятилетия. В центре новой стратегии -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дата-центры и робототехника. Речь идет о проектах стоимостью в сотни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а с учетом долгосрочных корпоративных планов крупнейших концернов масштаб заявл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превысит триллион долларов.

Переход в лигу "сверхконкурентных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держав"

29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провел в Сеуле национальную презентацию трех мегапроектов "большого скачка" Южной Кореи. В мероприятии участвовали глава Samsung Electronics Ли Чжэ Ён и председатель SK Group Чхве Тхэ Вон. Именно эти два концерна должны стать ключев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н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объединяющей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игантских дата-центров дл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развитие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физического ИИ - роботов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систем, работающих уже не только в цифровой среде, но и в реальн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медицине, логистике,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обороне.

Выступая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Ли Чжэ Мён заявил,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находится на поворотном этапе нов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ывк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ейчас стоит на переломном этапе нового большого скачка", - сказал он.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а должна стать "незаменимой Кореей" и совершить переход в лигу сверхконкурентных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держав. Тремя опорами такого рывка президент назвал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физический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 ИИ-дата-центры.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физический ИИ и дата-центр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 это три оси для такого большого скачка", - подчеркнул Ли Чжэ Мён. В логике Сеула эти направления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не по отдельности, а как едина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цепочка: чипы обеспечивают вычислительную базу, дата-центры дают мощности для работ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а физический ИИ переносит эти возможности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робототехнику и другие сферы ре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Пол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всей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И

Смысл объявл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не сводится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еще нескольких заводов или серверных комплексов. Южная Корея пытается занять место в новой мир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эпох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Если раньше страна прежде всего конкурировала как

производитель электроники, памяти, дисплеев, смартфонов, автомобилей и аккумуляторов, то теперь Сеул пытается закрепить сразу во всей цепочке новой экономики: от производства микросхем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чипов до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ощностей, дата-центров, облачных сервисов и внедрения ИИ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 корейской презентации постоянно звучала идея "треугольника" или "трех осе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сами по себе уже давно являются осно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Однако в эпоху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резко растет спрос не просто на память, а на высокоскоростную память, HBM,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ИИ-чипы, вычислительные платформы и центры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В такой системе дата-центр превращается не в склад серверов, а в своего рода фабрику вычислений. На таких мощностях обучаются и обслуживаются модели ИИ, работают облачные сервисы, генерируются тексты, изображения, видео, код и аналитика, а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ут управляться промышленные роботы, автономные системы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линии.

"Когда эти три оси будут органично работать, как зубчатые колес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может стать мировой сверхконкурентной индустриальной державой, ведущей революцию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 заявил Ли Чжэ Мён.

Фактически Южная Корея хочет перейти от модели "мы производим лучшие комплектующие" к модели "на наш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работает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И". Это уже бол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амбиций. В такой постановке вопроса корейские чеболи должны не просто поставлять чипы другим, а сам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оздании платформ,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ощностей и промышленных решени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ставка на втор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пояс

Самый крупный и наиболее четко артикулированный блок программы связан с полупроводниками. Министр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им Чжон Гван заявил,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сохранить статус сверхконкурентно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державы, иначе страна рискует потерять часть нынешних позиций. По его словам, доля Кореи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DRAM может снизиться с нынешних 61% примерно до 50%, если не ускорить расшир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тать незаменимо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державой, мы должны победить в трех гонках - за скорость, з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центры и за лидерство", -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Продолжиен на странице 7)

Остров Шумшу посетят молодые активисты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Григорием Гуровым.

Переговоры состоялись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молодёжи и были посвящены развитию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 оценке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ходит в пятерку самых привлекательных для молодёж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Мемориал и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лагерь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лига КВН, Всероссийский форум «ОстроVa» — наши флагмански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ритягивают талантливых молодых людей со всей России. Многие мы делаем для создан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карьерных перспектив молодёжи. В регионе работает центр для одаренных школьников «СахалинТех Алаид» и центр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лучил статус опорного вуза «Газпрома» и на 25 % увеличил количество бюджетных мест,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осмолодёжи отметил вклад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звитие условий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 территория с огром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Молодые люди там открытые, смелые, всегда готовы к новому. В Росмолодёжи мы это знаем: проекты ребят из региона всегда выделяются. Отдельно хочу отмет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программу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ых семей и повыше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проект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Здесь важна не только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но и целая среда: жилье, работа, образование,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тить детей и трудиться. Спасибо вашей команде з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к молодёжи, — подчеркнул Григорий Гуров.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тем встречи стало развитие круглогодич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Острова» — проекта Росмолодёжи,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на Сахалине с 2024 года. Центр помогает школьникам, студентам и молод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увидеть карьер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Сахалина, Курил и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участвует в создании корпоративной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передает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другим субъектам.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дальнейш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смолодёжи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продолжатся поиск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туристиче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В этом году обследование острова будет проведено в районе горы Северной и села Байково. Также места боевой славы посетят юные активисты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Всего в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на Шумшу планируют организовать заезд более 100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олодёжных групп. Напомним, создание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началось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год 80-летия Победы.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ы увековечению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 ключевого событ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завершившегося победой Красной армии и разгромом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В числе самых ярких молодёжных проект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КВН-движение. Созданная на Сахалине телевизион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лига КВН включена в топ-5 проектов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этом году команда «Сделано на Сахалине» вышла в полуфинал Высшей лиг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оздана региональная лига КВН, задача которой — развивать движение веселых и находчивых в районах.

В этом году с 10 по 16 август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нова примет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ёжный форум «ОстроVa»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ёжь. Форумы. На мероприятие съедутся 350 школьников, студент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ботающей молодёжи со всей страны. Для ребят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ярмарка вакансий и экскурсии на промышленные объекты. На фина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форума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Росмолодёжь. Гран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ают механизм контроля за сверхнагрузкой на дорожную сеть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добрил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инициатив, поступивших о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Предложения касаются улучше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и состояния дорожной сети, а также газификации садовых товариществ.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штаба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адим Пупе-на выступил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привлечь ответственный бизнес к уборке прибрежных территорий Теплых Озер и озера Буссе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Он отметил, что там регулярно образуются стихийные горы мусора из-за без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тдыхающих.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ласт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помогут бизнесу организовать субботники в природоохранных зонах и обеспечат бесплатный прием вывезенного мусора на полигонах.

— Еженедельно на заседаниях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 слушаю доклад об уборке свалок от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ров. Судя по вашей информации, есть стихийные мусорки, о которых мы не знаем. Поэтому считаю важным, чтобы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подключился к мониторингу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и направлял сведения нам. Что касается людей, которые хотят шефствовать над территориями: мы их будем вся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ть и поощрят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также озвучили, что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обеспокоены свалками из покрышек, которые при возгорании выделяют ядовитый дым.

— По ночам покрышки выкидывают в лесополосах, во время штормов шины выбрасывает из моря, а потом отдыхающие их жгут. Это вредит экологии.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профиль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разработали механизм их вывоза, приемки и хранения, — обратился член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Алексей Казанцев.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в регионе организован прием отработанных шин, пункты открыты в нескольких районах. Старые покрышк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т в крошку, которую затем используют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крытий на детских и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ках.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дна из коммер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предоставляет жителям возможность четыре шины в год сдать бесплатно. Сверх этого прием одного килограмма шин оценивается от 25 рублей. Сейчас мы прорабатываем вопрос, чтоб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жд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шиномонтажные компании на коммерческой основе осуществляли прием шин и организовывали их доставку до мест переработки. Проведем и разъяснительную работу с жителям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Губернатору доложили: от населения часто поступают обращения на крит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участков дорог от поселка Ноглики до села Арги-Паги, от города Углегорска до объектов Восточной горнорудной компании, а также от Невельска до угольной компании «Горняк».

— Люди сообщают, что по дорогам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ходят большегрузы с углем и инерт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Появляются ямы и провалы. Обидно, что год за годом региону приходится тратить деньги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уж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х дорог, — обратил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штаба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алерий Ерох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на проблемных участках, а также под надзором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совместно с недропользователями провес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дорог, привести их в нормативное состояние и разработать механизм контроля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верхнагрузки на автомобильную сеть.

После обращения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ровести инвентаризацию частных домовладений южной и юго-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чтобы включить их в перспективный план газификации. Сейчас там находятся порядка 30 садовых товариществ.

— Это массив, где проживают очень много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в том числе там выданы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семьям участников СВО,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на Силачев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Римша отметил: все СНТ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голубое топливо от межпоселков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Восточка. Ввести ег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ланируют в 2029 году.

165 дом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в этом году

Один из домов, где обновляют фасад, осмотре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ни проверили ход работ и пообщались с жильцами.

На Украинской, 9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внутренние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Сегодня завершаются капитальные работы в подвале. Уже заменили входные двери и окна в подъездах. А к августу дом 1978 года постройки обновит облик.

— Ребята молодцы! Быстро делают. Замазали все щели, утеплитель положили толстый. Дом у нас старый, и с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обвалился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фасад. В плане капремонта наш дом стоял на 2035-й, но нас с соседями услышали и передвинули на этот год. Мы очень рады, — поделилась южносахалинка Светлана Дымкова.

Жильцы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и, что у них остались замечания к прошлогодним работам на сетях.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 организовать встречу с фондом капремонта и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ей и оперативно провести работу над ошибками.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неухоженную контейнерную площадку и поручил навести там порядок.

— Главный заказчик — это люди. Слушайте их пожелания и действуйте в их интересах. Следите за тем, чтобы все работы были сделаны качественно и завершились в срок, а мы приедем и проверим, как вы справились,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ращаясь к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капитальными работами охватят 165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дут 299 конструктив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146 домов — 218 конструктивов. Во многих до-

мах комплексно заменяют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обновляют фасады и крыши. Такой подход снижает потери тепла в холодное время года, повышает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срок службы здания.

Еще одной точкой проверки стал двор на Емельянова, 21. Южносахалинцы обратились с просьбой сделать велопарковку и обустроить детскую игровую площадку. Первый вопрос будет решен у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 второму — предстоит провести голосование жильцов.

— Жители очень активны и вовлечены в жизнь своего дома. Здесь много семей с детьми, для которых обустройство игровой зоны крайне актуально. Ранее, на этапе капремонта двора, большинство собственников проголосовало против площадки, но теперь приоритеты поменялись. Важно пойти навстречу людям. Как только жители одобряют новое решение, муниципалитет начнет работ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 Я обращалась к губернатору лично. Просила, чтобы наш двор благоустроили. Благодарю, что на письмо быстро отреагировали. Уже поставили лавочки. У меня двое маленьких детей. Поэтому еще очень хотелось, чтобы они проводили время в нашем дворе. Сейчас приходится ходить гулять в соседние. Надеюсь, что у нас появится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 поделилась южносахалинка Олеся Юртаева.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ниверситет готовится принять 1200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для молодёжи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ы прямой линии.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ГУ предусмотрены 700 бюджетных мест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500 — на договорной основ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выпускники островных школ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освои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 родном регионе.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ниверситет стал единственны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порным вузом «Газпрома». Передовая инженерная школа начала реализацию научных проектов для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секторов экономик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ыпускники вуза будут трудиться на самых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х 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ах.

— Я убежден, что наших детей не нужно отправлять на матери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сть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учебы,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и творчеством, насыщенной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Новый студгородок нередко сравнивают с олимпийской деревней. Развивает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база: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лаборатории, привлекаются преподаватели, формируется тес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ключев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региона. Мы выстраиваем для студентов понятные карьерные траектории. Поэтому мы не просто наблюдаем за приемной кампанией — мы боремся за наших детей. Уже около 200 человек подали заявления, и я ежедневно отслеживаю эту динамику. Обращаюсь к родителям: поддержите нас в этом. Если дети останутся здесь, они смогут реализоваться, по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и семью рядом с вами. Тем ребятам, кто все же решит учиться на материке, скажу одно: возвращайтесь домой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прямую ли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обратился абитуриент — будущий юрист.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оинтересовался,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ли компенсация половины стоимости обучения на его специальность.

В эфире был дан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твет.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ебятам, которым не удалось пройти на «бюджет», оказывают такую поддержку.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Юриспруденция»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усмотрено 12 бюджетных мест и 17 — на договорной основе. По последним предусмотрено компенсация.

Также сахалинцы спросили, планирует ли в СахГУ готовить кадры для Роскосмоса в ожидании открытия трассового измерительного пункта в Поронайск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ветил: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осваивать компетенции в сфер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анализа данных. С этого года наш вуз начнет набор на бюджетные места по программе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Выпускники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связанным с космосом. Кроме того, развивается научная школа по анализу космических снимков Земли. На базе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бера» открылся центр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нем создаются и внедряются технологии анализа больших данных,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обработки информации с космических аппаратов.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ахалинская молодежь получила боль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в родном регионе. Как результат — островн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число регионов с наименьшим оттоком выпускников, а также заняла пят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для молодежи по версии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Сахалинский кампус «Школы 21» в этом году проведет еще пять отборочных интенсиво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учащимися сахалинского кампуса «Школы 21». Глава области и цифровая команда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или будущим ИТ-специалистам ведущие проекты отрасли и кадровые перспектив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ая Корея анонсировала "большой скачок" в эпоху ИИ: Сеул объявил гигантскую программу инвестиций 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дата-центры и роботов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3)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дного столичного пояса уже недостаточно: "Только од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центра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не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ответить на взрывной рост спроса н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Именно этим объясняется ставка на новые фабрики. Samsung Electronics и SK Hynix, согласно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планам, должны инвестировать около 800 трлн вон (ок. 600 млрд долл) в создание крупного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юго-западе страны. Речь идет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четырех фабрик памяти.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го из ключевых регионов упоминается Кванджу и прилегающая зона провинций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Чолла. Для юго-западных регионов, которые традиционно считались менее индустриализированными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столичным поясом, Чхунчхон, Кёнсаном и Ульсаном, это может стать крупнейшим промышленным проектом за многие десятилетия.

Логика здесь не только экономическая, но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Существующие центры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Ионине, Пхёнтхэке, Хвасоне и других районах столичного пояса уже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емле,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оде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Поэтому Сеул хочет создать второй крупны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пояс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цы и ее пригородов. Это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мышленная стратег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и программ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тде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центральный регион или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Чхунчхон. Сюда планируется вложить около 81 трлн вон (53 млрд долл) в развит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базы для HBM (High Bandwidth Memory) и advanced packaging -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многослойной сборки чипов, без которых производство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й памяти невозможно.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ая память HBM стала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компонентов ИИ-рынка: она необходима для граф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ров и ускорителей, на которых работают крупные модел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оэтому борьба за HBM - это уже не просто борьба за очередной сегмент памяти, а борьба за место в глобальной цепочке ИИ.

Samsung также обозначила региональную карту собств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Глава компании Ли Чжэ Ён заявил, что компан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Кванчжу как кандидата для нового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Среди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мы планируем Кванчжу как возможную площадку, поскольку там ожидается поддержка по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оде, кадрам,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и другим стимулам", - сказал глава Samsung Electronics. HBM и передовое пакетирование, по его словам, компания будет 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 в Чхонане и Онъяне, робототехнику и физический ИИ - в Куми, батареи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и системы накопления энергии - в Ульсане, судостроение - в Кодж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подложки - в Пусане, а би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в Сонгдо.

SK, в свою очередь, заявила о масштабном ускорении своих планов. Чхве Тхэ Вон сообщил, что SK Hynix намерена сократить сроки реализации кластера в Ёнине примерно на 12 лет: то, что ранее планировалось завершить к 2045 году, теперь хотят продвинуть значительно ближе. "SK Hynix решила ускорить план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ластера в Ёнине,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л быть завершен в 2045 году, на 12 лет", - заявил Чхве.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SK, группа планирует около 600 трлн вон на расширение DRAM-производства в Ёнине, около 100 трлн вон на NAND (флеш-память) в Чхонджу и около 400 трлн вон на новый юго-западный кластер.

Дата-центры: фабрики вычислений

Второй мегапроект связан с ИИ-дата-центрами. Именно здесь прозвучали одни из самых больших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иболее сложных для интерпретации цифр. Министр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э Гён Хун заявил, что к 2029 году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привлечь около 550 трлн вон инвестиций в дата-центры дл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бщей мощностью 8,4 ГВт. К 2035 году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добавить еще 10 ГВт и вывести общ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на уровень свыше 1 квадриллиона вон.

"В нашей стране до 2029 года мы намерены продвигать инвестиции в ИИ-дата-центры мощностью 8,4 ГВт на сумму около 550 трлн вон", - заявил Пэ Гён Хун. По его словам, дальше в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строить 10 ГВт ИИ-дата-центров к 2035 году и привлечь инвестиции объемом свыше 1 квадриллиона вон".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для оценки реальных масштабов инвестиций эти цифры нельзя механически складывать с другими корпоративными заявлениями, иначе возникает риск двойного счета. Тем не менее очевидно, что счет идет на сотни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приближаясь к триллиону.

Дата-центры для современной экономики так важны, потому что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требует гигантской вычислите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ам пользователь видит только экран телефона или компьютера, но реальные вычисления происходят в центрах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где работают тысячи и десятки тысяч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процессоров. Есл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 это двигатели новой экономики, то дата-центры - это заводы, где эти двигатели превращаются в полезную работу.

Министр науки Южной Кореи использовал для этого еще более рез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ИИ-дата-центр - это "фабрика токенов". "На 1 ГВт можно производить от 40 до 400 трлн токенов, и на основе этих токенов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физический ИИ и агентный ИИ", - сказал он. В современной ИИ-экономике токен - это условная единица текста, кода, команды ил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действия, которую обрабатывает модель. Чем больше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ощностей, тем больше таких операций может производить страна или компания. Отсюда идея token economy: если у страны есть дата-центры, чипы и облач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она может не только пользоваться чужими ИИ-сервисами, но и созда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й рынок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также делают акцент на локализации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решений для таких центров. Речь идет не только о серверах, но и о чипах, микропроцессорах NPU, системах охлаждения, энергоснабжении, программном обеспечении, сетях, кластерах, тестовых лабораториях и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В этом смысле дата-центры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как новая промышленная отрасль, а не как вспомогательная IT-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При этом власти делают ставку не только на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проект вовлекаются и другие крупнейш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рпорации. Так, Naver должен стать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участников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ИИ-экосистемы, обеспечивая развитие облачных сервисов и собственных моделе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GS Group,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один из партнеров по созданию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 инжен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новых дата-центров. Тем самым Сеул пытается объединить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операторов вычислите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разработчиков ИИ в единую 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экосистему.

Энергия как скрытый фундамент проекта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вызовов всей стратегии - электроэнергия. Дата-центр мощностью 1 ГВт - это потребитель уровня крупн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айона. Если Южная Коре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обирается выйти на 18,4 ГВт ИИ-дата-центров, это потребует гигантского расшире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Без дешевой и стабильной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ся стратегия останется красивой презентацией.

Поэтому в пресс-релизах постоянно по-

являются упоминания атом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солнечной и ветровой генерации, малых модульных реакторов, новых сетей и принципа "чисан-чисо" - производство и потребление энергии в одном регионе. Ли Чжэ Мён отдельно пообещал, что для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лощадок будет создана замет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выгода по тарифам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Ес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воды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в районе Кванчжу и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олла, вопрос тарифов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станет важным. По принципу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мест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мы сделаем так, чтобы по тарифам возникло яв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Для юго-западных регионов э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Там могут быть преимущества по земле, воде и возобновляемой энергетике, но нужны сети, подстанции, транспорт, жилье, школы, больницы, культур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кадры. Поэтому президент отдельно говорил не только о заводах, но и о создании условий жизни для работников.

ИИ в окружающем мире

Третий мегапроект - физический ИИ (Physical AI).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пока менее конкретно по суммам, но стратегически оно важно. Под физическим ИИ в Корею понимают систем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физическом мире: промышленные роботы, гуманоидные роботы, автоном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системы, медицинские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роботы,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логистика,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оборонные применения.

Южная Корея хочет к 2030 году сделать физический 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отраслью. Для этого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развивать ключевые компоненты робототехники, готовить кадры, создавать региональные центры масс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роботов и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разработать модель внедрения физического ИИ в ключевые отрасли.

Samsung обозначила Куми в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Кёнсан как центр инвестиций в робототехнику и физический ИИ. "Инвестиции, связанные с роботами, вместе с внутренним ИИ-дата-центром Samsung Group мы сосредоточим в Куми", - заявил Ли Чжэ Ён. Это тоже часть более широ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логики: не 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 все в Сеуле и окрестностях, а распределить новую 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экономику по нескольким промышленным зонам страны.

Главная идея здесь проста: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не должен остаться только чат-ботом, генератором картинок или офисным помощником. Следующий этап - это внедрение ИИ в станки, заводы, склады, суда, больницы, фермы и военные системы.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связк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 дата-центры - физический ИИ" для корейцев выглядит как единая промышленная цепоч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герои"

Отдель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ценой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о поведение Ли Чжэ Мён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главам Samsung и SK. После презент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ланов президент не ограничился обычной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Он подошел к Ли Чжэ Ёну и Чхве Тхэ Вону и низко поклонился каждому из них. По фотографиям и видеокадрам видно, что поклон президента был демонстративно глубоким и даже ниже ответного поклона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орпораций.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это был очень сильный символический жест.

Затем Ли Чжэ Мён заявил, что хотел бы назвать обо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героями" или "героями народа". "Я хотел бы назвать этих двух люд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героями или героями народа",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Он поблагодарил их от имени граждан за "трудное решение"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будущее страны 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бизнес способен действовать не только ради прибыли, но и ради будущ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Этот эпизод важен не меньше, чем

сами цифры. Ли Чжэ Мён долгое время воспринимался как политик, гораздо более критично настроенный к чеболям, чем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нсервативны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еперь же он публичн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союз государства и крупнейшего бизнеса. Причем делает это не формально, а почти театрально: президент кланяется руководителям Samsung и SK, называет их национальными героями и обещает лично сопровождать проект.

Ли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будет создан специальный ответственный за три мегапроекта, а он сам будет напрямую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их реализацию.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будет назначен ответственный за этот проект, и я лично буду следить за тремя мегапроектами, чтобы их исполнение продвигалось быстро", - пообещал он. Кроме того, президент заявил об ускоре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оцедурах, поддержке по вопросам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оды,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По сути, это сигнал бизнесу: государство готово не просто объявить стратегию, а стать активным партнером, снимающим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е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барьеры.

Корея пытается застолбить лидерство в эпохе 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дают программу как начало новой эпохи, и в выступлениях много торжественных формулировок о "большом скачке" и "незаменимой Кореи". Однако за этой риторикой есть рациональное ядро.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входит в этап, когда главным ресурсом становится не только нефть, газ, сталь или даже обычная электроника, а вычислительная мощность.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требует чипов, памяти, дата-центров,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охлаждения, сетей, программных платформ и специалистов. Страны, которые сумеют создать у себя так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с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пользоваться ИИ, но и продавать его другим, формировать стандарты,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и получать большую часть добавленной стоимости.

Отдельный вопрос - суммарной стоимости такого "большого скачка в эпоху ИИ". Точную сумму инвестиций сейчас назвать сложно, но очевидно, что она гигантская - более тр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возможно до двух триллионо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объявленные и достаточно чётко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ые проекты превышают 1,4-1,5 квадриллиона вон (900 млрд - 1 трлн долл). При этом руководители SK Group озвучили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е долгосрочные корпоративные планы, которые потенциально выводят общ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далеко за отметку в 2 квадриллиона вон. Однако из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пока неясно, в какой степени эти цифры пересекаются с уже объявле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проектами, поэтому простое сложение всех названных сумм было бы некорректным.

Но, похоже, что деньги у Кореи - государства и ее компаний - есть, и они готовы их вкладывать в будущее. Южная Корея понимает, что ее нынешнее лидерство в памяти не гарантировано навсегда. Китай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 собственную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ую отрасль. США концентрируют у себя крупнейшие ИИ-компании и облачных гигантов. Тайвань сохраняет ключевое значение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передовых чипов. Страны Персидского залива вкладывают огромные деньги в дата-центры, энергетику и ИИ-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Индия и Европа тоже пытаются занять свои ниши.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Сеул не может просто ждать, пока рынок сам определит будущих лидеров.

Поэтому программа Ли Чжэ Мёна выглядит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и оборонительно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Южная Корея хочет сохранить лидерство в памяти и укрепить позиции в HBM. С другой - она пытается выйти выше по цепочке стоимости и стать не только поставщиком компонентов, но и центром вычислите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Фестиваль подтвердил: поддержка семей героев — это не только социальная помощь, но и возможность быть услышанными, показать свой труд и сохранить 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в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사할린주 청년소득 지표, 전국 상위10위권 안에 들어

러시아 청년 전문가들의 소득률이 러시아 평균소득 지표 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스베르2B 분석가들이 밝혔다. 2026년1월부터 5월까지 만 18세 -34세 연령의 러시아 청년들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9만 7,800루블리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6,5%나 증가했다.

스베르 공보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청년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북극과 극동지역으로 기록됐고, 사할린주는 청년소득이 월평균 11만 9천 루블리로 8위에 올라있다.

18세 -34세 청년전문가들의 월평균 소득 최상위에 추코트카 자치구가 18만 2,500루블리(지난해 대비 15.1% 증가)로 올라가 있고, 마가단주가 15만1,200루블리, 모스크바가 14만 3,700루블리로 3위권에 들었다. 이어 상위 10위 안에 오른 지역들은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가 13만 8,300루블리, 캄차트카 변경이 12만 9,400루블리, 한티-만시 자치구가 12만 2,800루블리, 무르만스크주가11만 9,300루블리, 사할린주가11만 9000루블리, 사하공화국(야쿠치야) 11만 7,700루블리, 상트페테르부르크가 11만 6,800루블리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25세 -34세 청년 전문가들의 월평균 소득은 10만6,300루블리로 전 러시아 월평균 소득보다 8.9%가 높고, 18세 -24세 청년 전문가들의 월평균 소득은 7만8,500루블리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임금 수준이 상위권에 있는 업종들로는 광산업계 종사자들이 월평균 14만7000루블리로 가장 높고, 2위는 정보통신업계 종사자들이 14만700루블리, 3위에 전문,

과학, 기술사업계 종사자들이 11만 9,400루블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빠르게 근로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전력산업이15.1%, 주택공공사업이12%, 건설업계가 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десятку лидеров по зарплатам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Доходы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России растут быстре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выяснили эксперты Сбер2B Аналитики. По итогам января-мая 2026 года средняя зарплата россиян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34 лет достигла 97,8 тыс рублей в месяц,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6,5%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бера,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е доходы молодежи традиционно фиксируют в регионах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восьм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со средней зарплатой 119 тыс рублей в месяц.

Лидером по средне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специалистов 18–34 лет остается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 182,5 тыс рублей в месяц (+15,1% год к году). В тройку также вошли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151,2 тыс рублей) и Москва (143,7 тыс рублей). В десятку лидеров также попали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138,3 тыс рублей),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129,4 тыс рублей),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122,8 тыс рублей), Мурманская область (119,3 тыс рубл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119 тыс рублей),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Якутия) (117,7 тыс рублей)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16,8 тыс рублей).

Средняя зарплата специалистов 25–34 лет составила 106,3 тыс рублей в месяц, что на 8,9% выш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У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18–24 лет уровень доходов остается ниже — 78,5 тыс. рублей, однако динамика устойчиво положительная.

Лидером по уровню зарплаты стала добыча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где молодые сотрудники в среднем получают 147 тыс рублей в месяц.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информация и связь (140,7 тыс рублей), на третьем —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научная и техн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119,4 тыс рублей).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е темпы роста доходов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15,1%), ЖКХ (+12%) 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9,2%).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차량 절도, 충돌, 도주한 범죄자 검거

유즈노사할린스크 경찰들이 차량 절도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러시아 사할린 내무국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청년들은 밤에 주택가를 거닐다가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보고는 용의자들은 차량에 침입해 글로벌 박스에서 열쇠를 찾아 꽂고는 일정한 방향도 없이 도주해 버렸다.

이후 용의자들은 운전 미숙으로 도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사건현장에서 도주해버렸다. 용의자들을 사전 공모에 의한 집단 차량 불법점유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이들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및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영장을 발부했다.

Угнали, врезались, сбеж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держали автоугонщик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установили подозреваемых в угоне автомобил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лодые люди прогуливались ночью по дворам города и обнаружили припаркованный автомобиль. Дверь со стороны водителя оказалась не заперта, поэтому фигуранты проникли внутрь, нашли в бардачке ключи и уехали в неизвес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дальнейшем подозреваемые не справились с управлением и столкнулись с припаркованным на дороге автомобилем, после чего скрылись с места происшествия.

В отношении подозреваемых завели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по факту неправомерного завладения автомобилем группой лиц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муговору, а также выдали им подписки о невыезде и надлежащем поведении.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нники

М²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